

# 남도 민화, 화려한 부활을 꿈꾸다

개관 1주년 맞는 민화 전문 우칭미술관

최근 교육생·관람 단체 증가 인기  
김생수 작가 사재 털어 만든 미술관  
1층 전시장, 2층 민화아카데미 강좌  
공모전·교류전 등 저변 확대 앞장



▶개관 1주년을 맞는 우칭미술관 김생수 관장이 1층에 전시하고 있는 '연화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TV드라마나 서적, 잡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신사임당이 새롭게 조명받았다. 여류화가로서의 삶과 '초충도'(草蟲圖) 등 그가 남긴 그림이 주목받으며 민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우칭미술관(광주시 동구 금남로 232-4)은 지역에서 보기 드문 민화 전문 미술관이다. 우칭 김생수(66) 작가가 사재를 털어 만든 사립 미술관으로, 165㎡(50평) 규모 1층 전시장·2층 민화아카데미로 구성됐다.

김생수 관장과 함께 둘러본 미술관에서는 다양한 민화작품 50여점을 감상할 수 있었다. 나비가 노니는 모란꽃 작품부터 일월오봉도가 그려진 8폭 병풍, 십장생도를 비롯해 관련 서적, 도자기까지 민화 애호가들의 눈길을 끌만한 자료를 갖췄다. 또 초충도도 여럿 보였다.

김 관장은 "최근에는 사임당 인기 때문인지 수강생들이 초충도를 많이 그리고 있다"며 "전시작품을 보고 민화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이 주로 아카데미에 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에 세워진 8폭 병풍 '연화도'(蓮花

圖)는 김 관장이 지난 겨울 한달에 걸쳐 그린 작품이다. 현대 민화작품들이 옛 그림 모방에 그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작했다. 연꽃이 핀 연못 속에서 헤엄치는 잉어들, 우두커니 서 있는 학, 울쟁이와 함께 있는 개구리 등을 담았다.

2층 우칭아카데미에서는 수강생 10여 명이 한창 작업에 열중이었다. 김 관장이 그려준 밑그림에 채색을 하는 방식이다. 평일에는 주부나 은퇴자들, 주말에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977년 청강 김용대 화백에게 민화를 사사한 김 관장은 호남대 대학원에서 한국화를 전공하며 이론을 갖췄다. 지난 2007년 광주 동구문화원을 시작으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호남대 평생교육원 등에서 민화 작가들을 길렀다. 우칭미술관은 수많은 제자들이 결집할 수 있는 중심 공간이다.

2층은 또 한국전통채색화협회 행사 장소로도 사용한다. 현재 회원 120여명을 보유한 협회는 지난 2008년 김 관장이 설립했다. 명칭에는 '민화'에 대한 숨은 뜻이 숨어있다. 편의상 호칭을 '민화'로 부르고 있지만 '전통채색화'가 맞는 말이라고 한다.

김 관장은 "일제강점기 때 한국 그림을 짜집아서 '민화'라고 했다"며 "전해 내려오는 채색화라는 뜻에서 '전통채색화'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관 1년을 맞아 김 관장은 민화 저변 확대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다. 올해 6회를 맞는 민화공모전을 이어가고, 영호남·서울 교류전, 회원전, 개인전 등을 열 계획이다. 독일에서도 교류전을 연다. 또 5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는 목포대 수업을 비롯해 지난해 가을 개강한 순천 지역 수업도 올해 본격 진행한다.

지난 1년간 미술관 운영이 쉽지는 않았지만 서울에서 10년간 화랑을 운영했던 경험에 비해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민화는 쉽게 배울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장르입니다. 지난 1년간 미술관이 뿌리를 내렸다면 올해는 싹을 틔우고 내년부터는 꽃을 피우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약의 도시인 만큼 민화도 당당히 예술 한축으로 인정받길 바랍니다."

문의 062-383-840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우칭미술관 2층 아카데미에서 수강생들이 민화 실습을 하고 있다.

## 의상인 듯 예술작품인 듯 조근수 패션전



무등갤러리 29일까지

패션 디자이너의 독특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전시가 열린다.

조근수 패션디자이너가 무등갤러리에서 29일까지 '존재'를 주제로 패션전시회를 개최한다. 무등갤러리가 매년 개최하는 작가지원프로젝트 올 첫 행사다.

이번 전시에서 조 디자이너는 마네킹을 활용한 의상 10벌과 사진작품 10점을 선보인다.

의상은 원색이 눈에 띈다. 회화나 일 반 조각 작품처럼 다양한 형상으로 제작했다. 치마는 밑단에 풍성한 주름을 넣어 한복에서 볼 수 있는 전통미가 느껴지고 몸의 굴곡이 드러나는 꽃무늬 드레스는 단아한 맛을 풍긴다.

또한 밑질모자로 만든 의상 등 실험적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의상이 걸리는 마네킹은 검정, 빨강, 청록 등 다양한 천을 잡아 옷 색깔과 어울리는 점이 특징이다. 조 디자이너는 "일반 기성복은 길거리 상점에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는 예술성에 중심을 둔 의상을 출품했다"고 소개했다. 조씨는 지난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저고리 드로잉 공모전' 동상, 2008 서울 모델리스트 콘테스트 장려장 등 다 수 상을 수상했다. 현재 광주시 동구 충 장로5가에서 '조근수 패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062-236-252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현대미술작품 보존 강연회

오늘 뉴욕현대미술관 보존담당자 로저 그리피티 초청

광주시립미술관이 24일 오후 3시 세미나실에서 뉴욕현대미술관 보존담당자(Conservator) 로저 그리피티<사진>를 초청해 '현대미술작품 보존과 수복 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회는 뉴욕 현대미술관의 미술작품 보존과 수복의 역사, 현대미술에서 회화 복원사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다.

로저 그리피티는 뉴욕 현대미술관 보존수복부서, 건축·디자인 부서에서 조각 및 오브제 보존 담당을 맡고 있다. 영국 로얄컬리지와 빅토리아&앨버트 뮤지엄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서던



페어차일드 센터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 암스테르담 시립 미술관에서 오브제 컨서베이터로 활동했다. 브루스 코너, 호안 미로의 도록에서 관련 글을 저술했으며 미국과 캐나다 보존수복학회, 독일에서 열린 퓨처토크 컨퍼런스, 비엔나 국제학회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2-613-71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남도의 전통국악' 무대

내일 신밧노래·진도북춤·심청가·민요

봄을 맞아 무등산 자락에서 전통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흥겨움을 주는 자리가 펼쳐진다.

전통문화관이 오는 25일 오후 3시 토요일상설공연으로 다양한 남도 전통국악을 선보이는 '남도의 향(香)' 공연을 연다.

첫 무대는 친숙한 선율과 장단놀이의 즐거움을 관현악으로 풀어낸 '기약할주 신밧노래'다. 이어 풍물과 판소리가락이 남성적인 춤사위와 어우러지는 '진도북춤'을 진행한다. 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국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심청가'를 선사하며 자진옥자배기·삼산은반락·개고리타령으로 흥을 돋우는 '남도민요'로 무대를 마무리한다.

이번 공연은 김주희, 장보름이, 이병열, 유태선, 박정진, 제세별, 김다경, 손은선, 윤현명, 조가완 씨 등 지역 국악인 10명이 출연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오는 4월 1일에는 가야금병창단 '현의노래'를 초청, '봄날의 풍류'를 주제로 민요연곡, 25현가야금병창합주곡(판소리, 아리랑, 흥타령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문의 062-232-15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